

남북의 중심에서 통일을 외치다

연천 DMZ 고교생 백일장
시인 등 태풍전망대 방문
‘공존 국제 음악제’ 개최

‘시와 음악이 만나 통일 한국
을 노래하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제
2회 DMZ전국고교생 백일장’이
27일 연천군 일원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시인
협회(회장·문정희)가 주관하는
이번 백일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고교생들과 문정희·오세
영·유안진 시인 등 200여명이 참
가했다.

경인일보와 연천군, 육군 제
28사단, 통일부 등이 후원한 DM
Z백일장에 참가한 예비시인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분
단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를 작품
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연천 태풍
전망대를 방문했다. 또 철조망에
노란 리본을 매달며 통일을 염원
했다.

이어 북녘을 바라보며 남북분
단의 현실을 읊은 문정희 시인의
시를 낭독하는 등 DMZ의 의미
와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DMZ백일장 개최에 맞춰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과 새로
운 도약’을 기념한 ‘2015 제5회
연천 DMZ국제음악제: 공존’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날 오후 한
반도 통일미래센터 통일관 대강
당에서 열려 예비 시인들의 감성
을 자극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페도토프
와 피아니스트 갈리나 페트르바
의 1시간 가량의 듀오 리사이틀
에 ‘시와 음악간 만남’의 가능성
과 그 심오함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리운 금강산’으로 커튼 콜



27일 ‘제2회 DMZ 전국 고교생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이 연천 태풍전망대를 방문, 철조망에 노란 리본을 매달며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에 나선 막심 페도토프는 “음악
과 문학은 사람을 연결해 주고
소통시키는 만큼 글을 쓸 때 DM
Z를 안고 있는 연천, 나아가 대
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과 음악이 있었음을 기억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
들과 예비 시인들이 DMZ에서의
특별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
족의 한과 희망을 노래해 통일한
국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안보교육의 장'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이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활용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27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개최된 '3분기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서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경기도, 국정원 경기지부, 도경찰청, 수도군단 등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관광공사는 강화된 안보교육 환경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냉전체제 국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도·관광공사 '장소 활용' 협약

가안보의 상징적 장소이자 미군 공여지 반환의 대표적 사례인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광공사에 강사, 교재, 판넬을 포함한 일체의 안보교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광공사는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을 도 안보교육 장소로 우선 협조하는 등 안보교육에 필요

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캠프그리브스의 안보교육장소 활용으로 교육생들이 DMZ 일원에서 안보관련 현장 견학까지 병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감 넘치는 안보교육을 제공해 경기도 안보가 급변하는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기지를 리모델링 한 국내 유일의 민통선 내 일반인 대상 안보체험 숙박시설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김동수기자
17.0 X 8.8 cm



DMZ미군부대, 도 안보교육장 활용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관광공사

17.4 X 10.3 cm

캠프 그리브스서 '안보교육' 관광공, DMZ 체험관 활용

파주시 소재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이 경기도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3분기 경기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서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도 안보교육 장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관광공사는 강화된 안보교육 환경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냉전체제 국가안보의 상징적 장소이자 미군 공여지 반환의 대표적 사례인 캠프그리브스를 도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하게 됐다.

도는 관광공사에 강사·교재·패널을 포함한 일체의 안보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광공사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도 안보교육 장소로 우선 협조하게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4.7 X 14.3 cm

캠프 그리브스 '안보교육장소'로 활용

도-경기관광공사 업무협약 ... 'DMZ체험관' 현장견학 등 상호협조 약속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이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활용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3분기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서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경기도, 국정원 경기지부, 도경찰청, 수도군단을 포함한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해 경기안보교육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계획 설명, 을지연습 위기관리 연습 시나리오 토의, 경기도 통합방위에 규제정안 토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강화된 안보교육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냉전체제의 국가안보의 상징적 장소이자 미군 공여지 반환의 대표적 사례인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도 안보교육장소로 활용한다

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 강사, 교재, 판넬을 포함한 일체의 안보교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경기관광공사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도 안보교육 장소로 우선 협조하며, 이외에도 기타 안보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캠프그리브스의 안보교육장소 활용으로 교육생들이 DMZ 일원에서 안보관련 현장견학까지 병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감 넘치는 안보교육을 제공해 경기도 안보가 급변하는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기지를 리모델링한 국내 유일의 민통선 내 일방인 대상 안보체험 숙박시설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jesu@incheonib.com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3분기 경기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안보교육장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희겸(왼쪽)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

29.3 X 17.0 cm